

DTI 규제...주택대출시장 '한파'

〈총부채상환비율〉

이사철 불구하고 사실상 개점 휴업, 대출 잔액 감소세 전환

부동산 거래가 뜰 줄 알고 이달 2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 주택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뒤흔어지고 있다.

계절적인 비수기인 1, 2월과 달리 이사철인 3월에는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게 통상적이지만 올해는 좀처럼 대출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리마저 크게 오르면서 목돈이 생기는 대로 빚을 갚는 대출자들은 늘고 있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처음으로

로 감소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규 고객보다 빚 갚는 고객 더 많아=1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외환 등 7개 시중은행의 이달 8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담보다 1천522억원이 줄었다.

올 들어 주택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는 했지만 대출잔액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런 추세라면 은행권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은행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거래 통장에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 원리금과 월별 적용금리를 표기한다.

다른 은행에 비해 별다른 대출규제를 하지 않아 '풍선효과'를 토크해 늘려던 은행의 경우도 지난달 2천453억원 증가에서 이번 달 377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2금융권도 '한파'=DTI규제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금융권에서도 별다른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 수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기 시작한 11·15 대책 이후 주택대출 시장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권의 DTI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별다른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시장에도 LTV 규제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한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 관계자는 "LTV 규제 이후 하루 취급 실적이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대출 규제 때마다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외국계 대부분업체 페닌슐라캐피탈은 정부 정책

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일일 대출한도와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 늘리기 유인효과 없어=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30~60%를 적용하면서 거처기간 없는 원금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DTI 적용률을 5%포인트씩 늘려주기로 했지만 사실상 유인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정금리로 DTI를 높여려면 대출기간 전체를 고정금리로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행은 최대 5년(하나·농협은 최대 10년)짜리 고정금리 상품만 판매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제도라는 지적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5년 단기 대출을 받으려면 DTI 5%포인트 증가해 이익이 있지만 누가 5년짜리 단기대출을 받겠느냐"면서 "또 거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상환에 들어갈 경우 고객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년 뒤 유망 직업 1위 금융자산운용가

취업포털 커리어, 2위 경영컨설턴트

5년 뒤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으로 '금융자산운용가'가 뽑혔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학교와 연구소, 기업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취업 및 인사 전문가 30명을 상대로 지난달 5~25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2012년 유망직업 베스트 10'을 선정, 11일 발표했다.

2위와 3위는 자기발전성과 직업전문성, 업무성취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경영컨설턴트'(41.87점)와 '실버시터'(41.45점) 각각 차지했다.

4위는 '상담전문가'(41.25점)로 고용평등과 근무환경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5위인 컴퓨터 보안전문가(40.45점)는 일자리 수요면에서 전망이 밝은 것으로 점쳐졌다.

이어 ▲6위 브랜드관리사(40.33점) ▲7위 마케팅전문가(40.00점) ▲8위 투자분석가(39.22점) ▲9위 헤드헌터(38.15점) ▲10위 노무사(37.96점)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밖에 ▲11위 사회복지사 ▲12위 기업고위임원 ▲13위 피부미용사 ▲14위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15위 엔터테이너 ▲16위 해외영업원 ▲17위 인테리어 디자이너 ▲18위 의사 ▲19위 한의사 ▲20위 산업용 로봇조작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양도세 피하려고... 위장 이혼 후 재결합 편법

부유세 등 부동산 세금이 강화된 가운데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50%의 세율로 부과되는 양도세 탈세를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재혼하는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지방 재건축단지나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에서 이런 편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편법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증가가 시행되면서 경남 창원, 마산 등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 후 재결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장 이혼과 재혼을 통한 양도세 탈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5항을 악용한 것으로 이 조항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 들끼리 결혼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경남에서 이혼을 이용한 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혼한 뒤 원래 배우자와 재혼해도 양도세 부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어보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 이혼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편법 차단을 위해 법을 동원할 경우 차별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제도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며 "일선 세무서의 집행과정을 통해 적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금리조건 서명 의무화

금감원, 이달말부터 11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변동위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세부내용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삼성전자는 '크리스찬 디올 코스메틱'과 제휴, 오는 4월 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백화점내 크리스찬 디올 매장에서 뷰티 강좌를 열고 2007년형 하우젠 에어퀵 '바람의 여신'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주식부자 LG家 최다

500대 부자 중 37명...평균 보유액 899억원

주식평가액이 160억원 이상인 한국의 500대 주식부자 중에서 LG가(家) 사람들이 37명으로 재벌가문중 주식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10대 재벌가 중에서 상장사 보유주식 평가액이 가장 많은 가문은 롯데가로 신격호 회장 등 4명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3조7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제 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www.chaebul.com)이 국내 주요그룹 총수 및 일가족 3천700명의 상장사 보유주식 평가액을 9일 종가 기준으로 분석해 주식부자 500명을 가문별로 집계한 결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직·방계가족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정수 GS그룹 회장의 가족과 박용근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가족이 각각 26명,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들의 1인당 평균 주식보유액은 LG가의 경우 899억원, GS가는 575억원

그룹명	인원수	평가액(단위:억원)
롯데	4명	37,820
LG	37명	33,287
삼성	4명	28,667
현대차	2명	24,602
GS	26명	14,951
한화	4명	8,371
동부	3명	8,288
금호	7명	5,221
두산	15명	5,190

(총액 1조4천951억원)어치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이진희 회장 등 3명이 주식부자 500위에 포진돼 있으며 정몽규 현대차그룹 회장 가족은 2명에 불과했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가족은 7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가족은 4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가족은 4명, 김근조 동부 그룹 회장 가족은 3명이었다.

/연합뉴스

대미 수출 中日 '펼 펼' 한국은 '비틀'

코트라, 제품 경쟁력 떨어져 특단 대책 필요

수출시장 가운데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대비 수출정책과 점유율 감소가 심각한 상태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1일 발표한 '미국시장 점유율 감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경쟁국들에 비해 부진한 것은 미국 시장의 최근 경향을 따라잡지 못한다며 제품 경쟁력마저 뒤처지자 때

문이라고 진단하고 미국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2005년 5.2% 감소해 20대 대미수출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증가율이 4.7%에 그쳐 중국(20.9%)과 일본(7.2%)에 크게 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점유율은 1989년 4.2%를 정점에

로 2000년 3.3%, 2003년 2.9%, 작년 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운송기계와 고무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점유율이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전기기계류와 일반기계류 등은 말레이시아에도 점유율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미수출이 부진한 것은 수요 측면을 통한 사후 관리, 가격 중심의 공급측면 일반도 도매업에 의존하는 등 미국 시장의 변화추세를 따라잡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올 대규모 春鬪 없을 듯

노동계 "계획 없다"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놓고 수년 동안 이어졌던 대규모 춘투(春鬪)가 올해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계 투쟁을 주도해왔던 민주노총이 온건과 계열인 이석형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비정규직법 처리 등으로 노동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도 없어졌기 때문

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총파업 등 춘투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5월께 산별로 입단협 투쟁을 벌일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총파업 계획은 없다"며 "이석형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것은 대화로 풀다'는 기조를 갖고 있어 일단 대화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뱅킹 '해킹 주의보'

시중銀 전산 보안 강화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각종 해킹사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중은행들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은행들은 자체 전산 보안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인터넷뱅킹 범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에서 해킹과 보안 중이던 공인인증서가 유효·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구에서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보관 중이던 공인

인증서를 복사해 2천만원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피싱'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파밍' 수법이 등장해 은행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의심이 갈 경우 정보 입력을 즉시 멈추고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02-3939-112)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18 또는 02-1336, phishing@certcc.or.kr), 피싱신고 접수 사이트(www.krCERT.or.kr)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로또복권 (제22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	당첨자 수
01 03 18 20 26 27	3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 수
1 6개 숫자 일치	1,498,170,600	7
2 5개 숫자+보너스 수 일치	44,817,070	39
3 5개 숫자 일치	1,234,369	1,416
4 4개 숫자 일치	51,782	67,509
5 3개 숫자 일치	5,000	1,107,956

팝콘복권 (제4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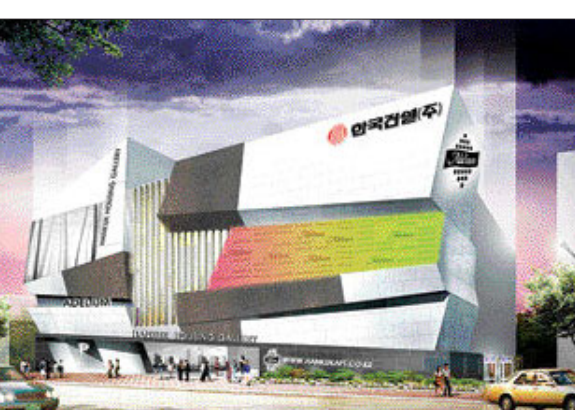
등 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1조 190657
2	5억	1조 190656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71289
5	1만	각조 491
6	2천	각조 58
7	1천	각조 49
		각조 5
		각조 2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신도리코 전남지사	신도리코 정규직 수시채용 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3/13	062-511-5850
광주교육문화	전화상담 및 경리 사무업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14	062-373-7200
정우종합유통	[정규직] 경리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03/15	062-262-0970
오리온	[광주] 영업 및 영업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03/16	062-373-2391
삼창기업(주)	삼창기업(주) 호남사업소 전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16	031-458-8866
이베코정비(주)	수입상용 서비스 및 고차/부품입출고 관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3/20	062-943-8710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아티비오트M오일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0	062-417-6008
삼익제약(주)	경리 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20	062-362-0776
한국쓰리축	사무관리 및 현장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3/23	062-943-8710
에스에이테크놀로지	건축기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03/23	062-942-0052
한국상용차(주)	한국상용차 부품사업팀 인턴 직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03/23	062-943-8238
광주세정아울렛	매장관리 및 판매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3	062-375-0067
나명산업	셀빙/조식/공정검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03/23	062-951-6900
비봉산업(주)	오픈마켓-온라인영업 및 웹디자인 사원모집	고졸/경력2년	1200~1400	03/23	061-383-8252

<광주직접콜리 512-6210 제공>

'한국아델리움 주택전시관' 개관



한국건설은 오는 4월께 광주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초대형 통합주택전시관(조감도)을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아델리움 주택전시관'은 건축면적 760평(2천515㎡), 주차면적 468평(1천550㎡) 규모로 들어서며, 인근 대중건설의 '피오레 하우스'와 함께 지역민들의 선진주택환경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 전시관은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신개념의 주택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으며, 4월 개관과 함께 품안(2차), 문흥(오차), 운림(소태) 등 '한국아델리움'의 견본주택을 선보이는 등 통합주택전시관으로 활용된다. 문의 1577-8733.

한국건설 관계자는 "이제는 주택전시관도 기존 모델하우스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요자들이 각종 첨단 기술과 문화적 혜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주택전시관은 ▲친환경 자연마을 ▲유비쿼터스 시설 ▲호텔식 서비스 등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